

## 발화합성법에 의한 YBCO계 고온 초전도체 제조 및 특성

김영순 · 이영민 · 양석우 · 김연수\* · 박정식\*\* · 신형식<sup>†</sup>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광양대학 석유화학공업과

\*\*한려대학교 석유화학공학과

(1999년 9월 7일 접수, 1999년 11월 15일 채택)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YBCO High- $T_c$ Superconductor Manufactu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

Young-Soon Kim, Young-Min Lee, Suk-Woo Yang, Yeon-soo Kim, Jeoung-Shik Park\* and Hyung-Shik Shin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561-756, Korea

\*Department of Petrochemical Engineering, Kwang Yang College, Kwangyang 545-800, Korea

\*\*Department of Petrochemical Engineering, Hanlyo University, Kwangyang 545-800, Korea

(Received 7 September 1999; accepted 15 November 1999)

### 요약

$\text{YBa}_2\text{Cu}_3\text{O}_{7-x}$ 계 고온 초전도체를 원료물질인  $\text{Y}_2\text{O}_3$ ,  $\text{BaCO}_3$ ,  $\text{CuO}$  및  $\text{AgNO}_3$  분말로부터 발화합성법으로 제조하였다.  $\text{YBa}_2\text{Cu}_3\text{O}_{7-x}$ (Y123)와 1 몰의 Y123에 Ag를 0.1 몰, 0.2 몰 및 0.3 몰 첨가한  $\text{YBa}_2\text{Cu}_3\text{Ag}_y\text{O}_{7-x}$ (Y123-Ag<sub>y</sub>)의 특성을 입도분석기,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DSC),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X-ray diffractometer(XRD), 4단자 저항 측정장치(4-probe resistivity measuring equip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및 electron probe microanalysis(EPMA) 등으로 분석하였다. 50 °C에서 건조한 발화용액은 210-240 °C 사이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무게감소를 보여주는데, 240 °C에서의 무게감소는 75%였다. 발화된 분말은 810 °C와 975 °C 사이에서 흡열반응과 함께 무게감소가 있었으며,  $\text{YBa}_2\text{Cu}_3\text{O}_{7-x}$ 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880 °C에서 24시간 소결한  $\text{YBa}_2\text{Cu}_3\text{O}_{7-x}$ 의  $T_{c,zero}$ 는 92.2 K였고, Y123에 Ag를 0.2 몰 첨가한 경우에 입자가 치밀한 미세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 The  $\text{YBa}_2\text{Cu}_3\text{O}_{7-x}$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s were prepa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 from  $\text{Y}_2\text{O}_3$ ,  $\text{BaCO}_3$ ,  $\text{CuO}$ , and  $\text{AgNO}_3$  powders.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text{YBa}_2\text{Cu}_3\text{O}_{7-x}$  and  $\text{YBa}_2\text{Cu}_3\text{Ag}_y\text{O}_{7-x}$  added to Ag of 0.1 mol, 0.2 mol, and 0.3 mol were investigated with particle size analyzer,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DSC),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X-ray diffractometer(XRD), 4-probe resistivity measuring equip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and electron prove microanalysis(EPMA). The weight loss of 75% is observ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10 °C to 240 °C, which occurs with an exothermic peak of the powder neutralized and dried at 50 °C. The powder prepa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 occurs with an endothermic peak and the weight loss in the temperature range of 810 °C to 975 °C, and the simultaneous formation of the  $\text{YBa}_2\text{Cu}_3\text{O}_{7-x}$ . The  $T_{c,zero}$  of  $\text{YBa}_2\text{Cu}_3\text{O}_{7-x}$  sintered at 880 °C for 24 hr was 92.2 K, and microstructure of  $\text{YBa}_2\text{Cu}_3\text{O}_{7-x}\text{-Ag}_{0.2}$  was enhanced.

Key words: Superconductor, YBCO, Pyrophoric Synthetic Method, DTA, Ag, Particle Size

### 1. 서 론

일정한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초전도 상태라 하는데 이러한 초전도성의 발견은 인류역사에 있어 전기의 발명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같은 초전도 현상은 1911년 네덜란드의 Onnes[1]에 의해 극저온인 4 K에서 수온에 대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1973년 23 K에서  $\text{Nb}_3\text{Ge}$ 가 초전도성을 보이기까지 60년간 약 19 K의 상승이 있

었다. 그 후 1986년 Bednorz와 Müller[2]가 La계 산화물을 발견하였고, 1987년 Chu[3, 4] 등이 La을 Y으로 치환함으로써 Y-Ba-Cu-O계 고온 초전도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고가의 액체헬륨을 사용해야 하는 저온 초전도체는 그 활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나, 전이온도가 90 K 이상인  $\text{YBa}_2\text{Cu}_3\text{O}_{7-x}$ (Y123) 초전도 산화물은 저가의 액체질소를 사용할 수 있어 초전도체의 실용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그후 Y계보다 더 높은 전이온도( $T_c$ )를 갖는 즉, 105 K 및 125 K에서 완전 전도체가 되는 Bi계[5] 및 Ti계[6]의 산화물이 발견되었으나, 실용화하는 데에는 Bi계 및 Ti계 초전도체보다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장점을 갖는 Y계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

<sup>†</sup>E-mail: hsshin@chonbuk.ac.kr

다. 이러한 Y계 고온 초전도 산화물의 응용은 높은 외부 자장 하에서 큰 전류를 저항 없이 흘릴 수 있는 전류 통전 능력과 외부 자장 하에서의 자기부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기, 전력저장, 송전 케이블 등의 전력시스템의 초전도화와 자기부상열차, 초고속 연산 컴퓨터, 입자기속기, 초전도 선박 및 초감도 계측기 등의 산업전반에 걸쳐 응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응용을 위해서는 bulk, 박막 또는 선재 등으로 다양하게 제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조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고상반응법[7]으로 제조되는 bulk형 초전도체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임계전류밀도( $J_c$ )를  $10^4$  A/cm<sup>2</sup> 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세라믹스가 갖는 열약한 기계적 성질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각종 전력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자석에 고온 초전도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휨성, 유연성 등의 기계적 특성과 고자장하에서도 높은 임계전류밀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응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J_c$ 와 자화율( $x$ )의 증가, 그리고 자기적·기계적 성질 등[8]을 보다 향상시켜야만 한다.

Bulk형 Y123 초전도체의 기계적 성질과  $J_c$ 를 제고하기 위하여 Ag, Pt, 또는  $\text{Y}_2\text{BaCuO}_5$  등[9-11]을 첨가함으로써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제조방법에서도 균일한 혼합과 미세한 분말제조가 가능한 발화합성법[12-14]과 입계 사이의 결합을 줄이고 일방향 성장을 가져오는 용융공정 등[15-19]이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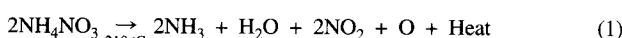
초전도체는 크게 박막, bulk 및 선재 상태로 제조되고 있으며, bulk 초전도체는 일반적으로 고상반응법[7]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혼합(mixing), 하소(calcination) 및 소결(sintering) 등의 반복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공정변수의 복잡성 때문에 재현성이 좋지 않으며 기계적인 분쇄로 인하여 균일하고 미세한 초전도분말을 얻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인 액상혼합이 이루어지며, 혼합액의 자연발화로 인하여 미세하고 균일한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발화합성법을 이용하여 Y123을 제조하였다. 또한, 이 방법으로 Y123 초전도체에 Ag을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 2. 실험

$\text{Y}_2\text{O}_3$ ,  $\text{BaCO}_3$ ,  $\text{CuO}$  및  $\text{AgNO}_3$ 를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발화합성법으로 제조하며 그 제조과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원료물질을 양론비에 따라 청량하여 1N의 질산용액에 녹인 후, 이 용액을 chelation시키기 위해 chelation 비로 구연산(citric acid)을 첨가하고,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pH 7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을 250 °C 건조기에서 약 5시간 동안 가열하면, 매우 낮은 밀도의 미세한 흑갈색의 분말을 얻는다.

원료물질을 녹이는 질산과 중화시에 사용한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질산암모늄을 형성하는데, 이 질산암모늄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분해된다.



이 용액을 250 °C에서 건조시키면 발포(發泡)가 일어나며 동시에 자연 발화하여 탄소나 질소 등은 산화되어 없어지고 Y계 초전도체의 조성을 갖는 미세한 흑갈색의 분말이 만들어진다.

본 실험에서 키레이트제로서 사용한 구연산(citric acid,  $\text{C}_6\text{H}_8\text{O}_7$ )의 -COOH기가 금속 이온( $\text{Y}^{3+}$ ,  $\text{Ba}^{2+}$ ,  $\text{Cu}^{2+}$ ,  $\text{Ag}^{+}$ )과 결합하여 (2)-(5)식의 반응식으로 다음과 같은 유기금속착물(organometallic complex)인  $[\text{Y}_2(\text{C}_6\text{H}_8\text{O}_7)_3]$ ,  $[\text{Ba}(\text{C}_6\text{H}_8\text{O}_7)]$ ,  $[\text{Cu}(\text{C}_6\text{H}_8\text{O}_7)]$  및  $[\text{Ag}_2(\text{C}_6\text{H}_8\text{O}_7)]$ 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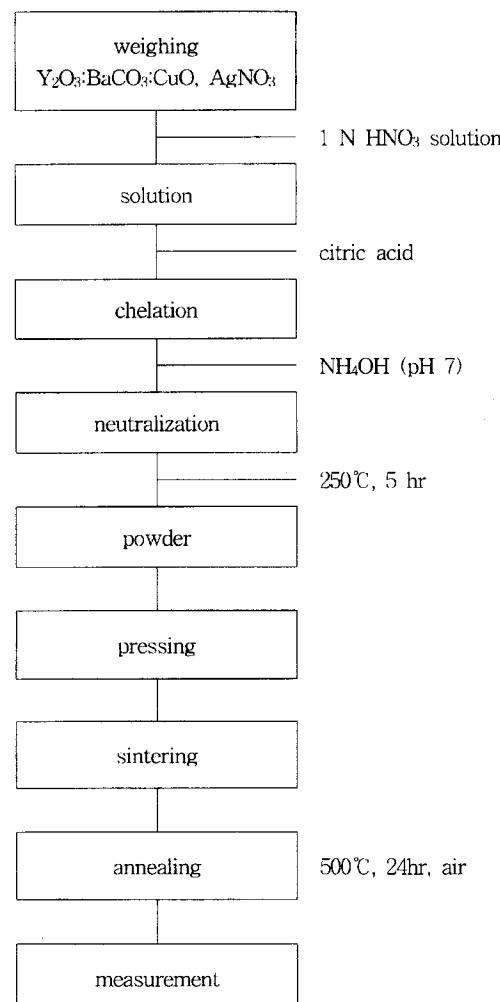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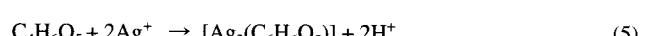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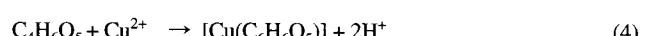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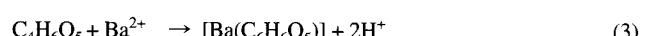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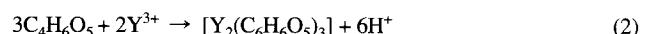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of pyrophoric synthetic method.



Y123 분말과 Ag를 물비로  $y=0.1$ , 0.2 및 0.3 첨가하여 얻은  $\text{Y}_1\text{Ba}_{2-x}\text{Cu}_3\text{Ag}_x\text{O}_{7-x}$ (Y123-Ag<sub>y</sub>) 분말을 250 kg/cm<sup>2</sup> 압력을 가하여 원판의 형태로 성형한다. 이때 원판의 직경은 15.35 mm, 두께는 약 1 mm 였다. 성형체를 소결온도 880 °C에서 24시간 소결한 후, 서서히 온도를 낮추어 500 °C에서 24시간 열처리한 다음 공기 분위기에서 냉각하였다.

## 3. 측정방법

발화합성 용액의 열 특성 및 발화반응에 따른 반응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pH 7이 되도록 중화한 후, 용액을 발화시키지 않고 50 °C에서 진공 건조시켰다. 건조된 분말을 상온에서 시차 주사 열량 분석(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과 열중량 분석(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으로 상온에서 1,050 °C까지 5 °C/min의 속도로 가열하면서 열의 출입과 무게감소를 분석하였으며, 발화된 분말의 입자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범위가 0.03-

700  $\mu\text{m}$ 인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Shimadzu SALD-2001)를 사용하였다.

소결시편의 결정구조 및 생성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X-Ray 회절분석기(XRD, X-ray diffractometer : Rigaku III/A type)로 조사하였으며, Cu( $K_{\alpha}=1.5418 \text{ \AA}$ ) target를 사용하여 20-60  $^{\circ}\text{C}$ 간을 회절선 분석하였다. Tube voltage와 current는 각각 30 kV와 20 mA이었으며 4 %/min의 속도로 조사하였다.

초전도 임계온도( $T_c$ ) 이하에서는 전기전도도가 무한대가 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의 온도를 액체질소 온도까지 서서히 내리면서 온도변화에 대한 전기저항을 AC-4단자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시편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저항을 감소하기 위하여 silver-paste를 이용하여 페인트 접촉을 하였다.

발화된 분말과 열처리한 시편의 표면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JSM-6400)와 electron probe microanalysis(EPMA, LINK-ISIS)로 관찰하였다.

#### 4. 결과 및 고찰

50  $^{\circ}\text{C}$ 에서 건조한 Y123 발화전 용액의 DSC와 TGA 곡선을 Fig. 2에 나타내었다. 210-240  $^{\circ}\text{C}$  사이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났으며, 같은 온도인 210  $^{\circ}\text{C}$ 부터 급격한 무게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무게는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시작온도에서 10%, 끝나는 온도에서 75%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hattacharya 등[12]이 구연산(citric acid,  $C_6H_8O_7$ )을 사용하여 Y123 전구 분말을 제조할 때 225  $^{\circ}\text{C}$ 에서 발화반응이 일어난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발화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중화된 용액이 들어 있는 용기를 오븐에서 250  $^{\circ}\text{C}$ 로 가열하며 5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가열하는 동안 중화된 용액 내에 들어 있는  $\text{NH}_4\text{NO}_3$ 는  $\text{NH}_3$ ,  $\text{H}_2\text{O}$ ,  $\text{NO}_2$  및  $\text{O}$  등의 여러 가지 기체로 분해되며 발생기 산소( $\text{O}$ )로 인한 발열반응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 동안 용액은 거품을 일으키며 암갈색의 미세한 분말로 된다.

195  $^{\circ}\text{C}$  부근에서 흡열 peak가 나타나는데 구연산의 녹는점과 털수되어 aconitic acid가 되는 반응 peak로, 이러한 결과는 polyacrylic acid를 chelating agent로 사용하고 졸-젤 법으로 Bi계 초전도체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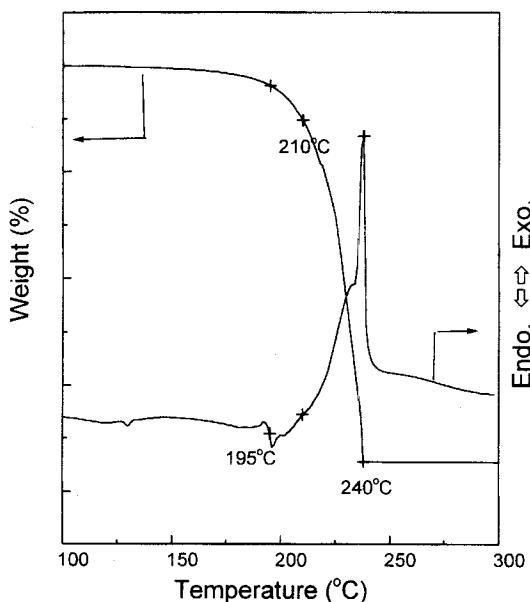


Fig. 2. DSC and TGA curves of the vacuum-dried material.

조한 경우 유기물의 연소로 나타나는 흡열 peak와 유사한 결과이다 [20]. 또한 사과산( $\text{C}_4\text{H}_6\text{O}_5$ )을 사용하여 Y계 초전도 분말과 선재를 제조할 경우 160  $^{\circ}\text{C}$  온도에서 나타나는 유기물의 반응 peak와도 같은 결과이다[21].

발화 용액의 pH의 변화에 대한 Y123 발화 분말을 입자분석기로 측정하였다. 측정시에 분말을 에탄올 10 ml에 Y123 분말을 1 g 넣어 혼탁액을 만들고, 혼탁액의 고른 분산을 위해 분산제(sodium hexametaphosphate, 0.01 wt%)를 첨가하고, 30분간 초음파 분산시켰다. 측정한 결과를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분말은 고른 분포상태를 갖고 있으며, 좋은 누적분포를 보이고 있다. pH 7에서의 분말이 가장 좋은 분포상태를 갖고 있으며, 이때 분말의 평균입자 크기는 0.360  $\mu\text{m}$ 였다. pH 5의 경우 평균입자 크기는 510  $\mu\text{m}$ 였고, pH 9의 경우 590  $\mu\text{m}$ 로 pH 7 보다 큰 입자였으며, 분포 또한 pH 7에서 좋았다. 이는 발화합성 용액의 pH가 Y123상의 생성 및 반응속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실험[14]에서 pH 7에서 반응성이 가장 좋았고, 이때의 활성화에너지가 191 kJ/mol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하여 초기 분말의 상태로서 pH 7이 좋은 분말임을 확인해 준다.

Fig. 3에서 0.600  $\mu\text{m}$  이상의 입자들은 발화시 응집된 분말들이 입자분석시에 분산되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는 Park[14, 21] 등의 실험에서 수십  $\mu\text{m}$  크기의 커다란 응집상으로 관찰된 SEM 사진 형태와 같은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 분말을 10 ml 에탄올에 0.1 g 넣어 5시간 초음파 분산시킨다. 분산된 용액 안에 cu sieve를 넣었다 빼고, 이를 전조시켜 백금 coating하여 SEM으로 관찰한 결과가 Fig. 5이다. 사진에서 sub-micro 이하의 분체가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전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량의 다른 물질을 첨가하기도 하며, 제2상을 첨가하여 용융공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균일하게 분포하고 미세한 분말 특성을 갖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Y211을 제조한 경우[23]에 고상반응법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나타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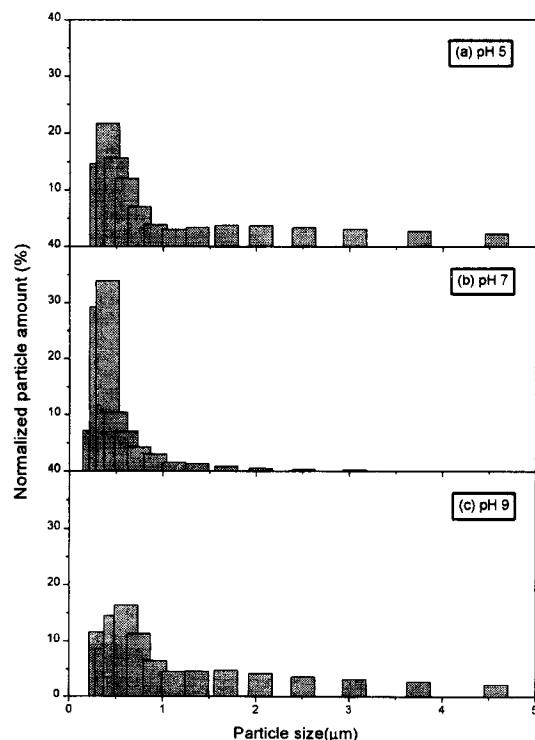


Fig. 3. Particle size analysis of powders prepa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 in various pH solutions at 250  $^{\circ}\text{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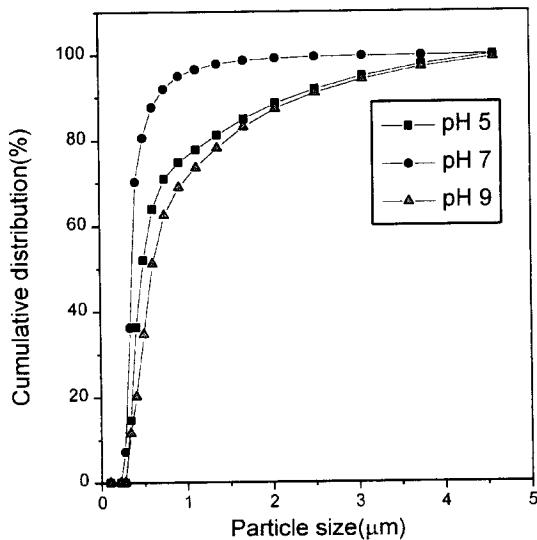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owders prepa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 in various pH solutions at 250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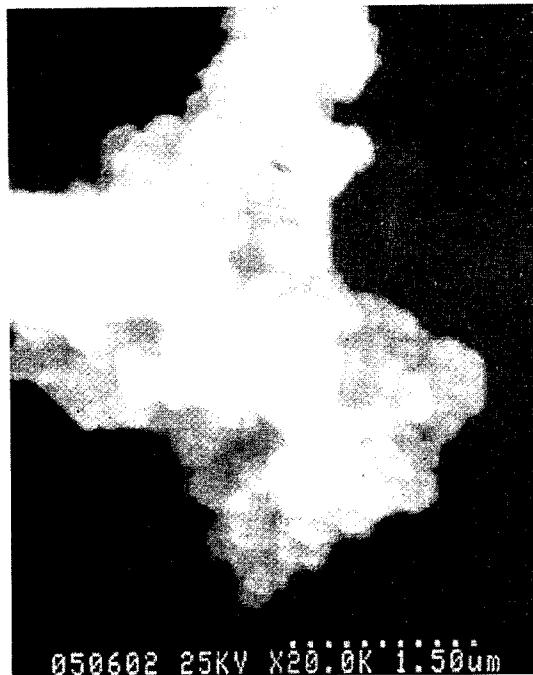


Fig. 5. Secondary electron image of powder prepa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 pH 7 solution at 250 °C.

도 미세하고 고른 분말 특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발화합성(a)과 고상반응(b) Y123 분말의 열처리하기 전의 X-선 회절 곡선이다. 원료 peak인  $\text{Y}_2\text{O}_3$ ,  $\text{CuO}$  및  $\text{BaCO}_3$ 의 특성 peak가 나타났다. 그러나 발화 분말(a)는  $\text{CuO}$  대신  $\text{Cu}_2\text{O}$ 의 회절선이 얻어졌다. 이는 발화공정중 희박한 산소분위기에서 발화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text{Cu}_2\text{O}$ 의 생성이 지배적이며, 300 °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면  $\text{Cu}_2\text{O}$ 의 회절선은 사라진 반면  $\text{CuO}$ 의 회절선이 생성[14]됨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발화된 분말의 DSC와 TGA 곡선이며, 800-975 °C 사이에서 두 개의 흡열 peak이 나타났다. 첫 번째 peak인 810 °C에서는  $\text{BaCO}_3$ 가 분해되고, 동시에  $\text{CO}_2$  발생으로 무게 감소가 일어나며 Y123이 생성되기 시작된다[24, 25]. 또한 무게 감소가 일어나는 온도인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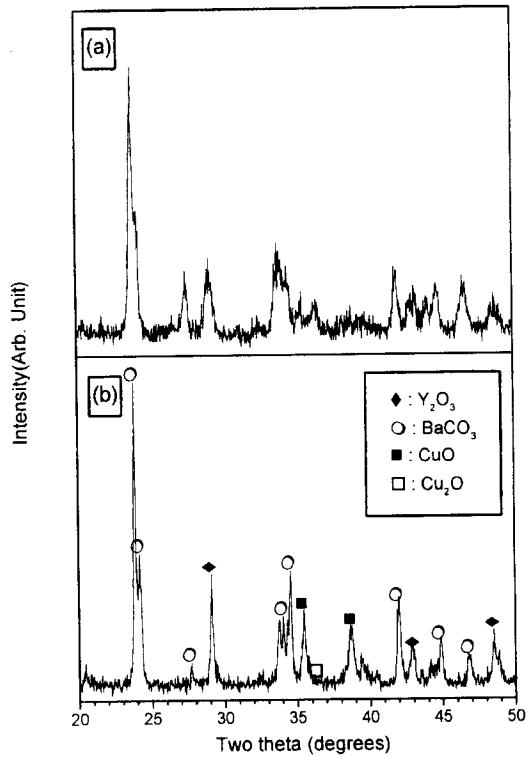


Fig. 6.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owder prepa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a) and solid state reactio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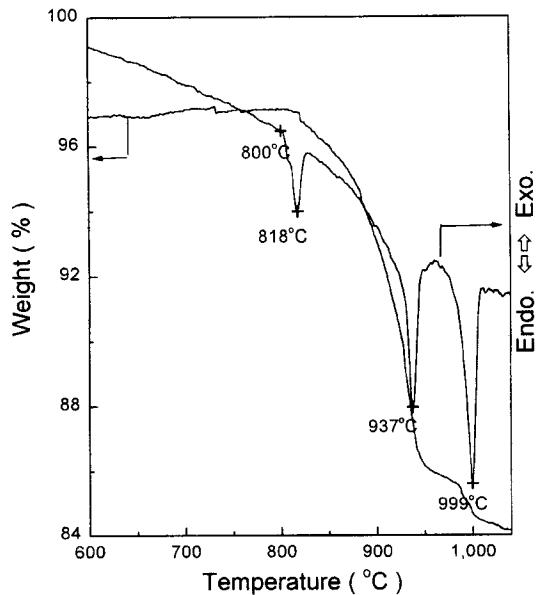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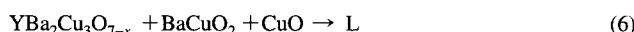


Fig. 7. DSC and TGA curves of Y123 powder manufactu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

°C에서 Y123이 급격히 생성되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20 °C에서부터 나타나는 흡열 peak은 공정온도(eutectic temperature)로서 공정 반응식 (6)i 일어나는 온도이다[25]. Glycerol로 Y123을 제조한 Kamat[26] 등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Y123을 제조할 경우 850-900 °C 등의 온도에서 소결하며 좋은 초전도 특성을 갖는 시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24시간 이상 소결하며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한다. 1,000 °C 부근에서 나타나는 흡열 peak은 Y123이 용융되는 온도로써 Y211과 액상으로 분리되는 포정 온도(peritectic tem-

perature)로서 포정 반응식 (7)이 일어나는 온도이다. Y123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온도에서 포정반응시키기도 한다.



Ag를 20 wt% 첨가한 Y123-Ag 발화 분말의 DSC와 TGA 곡선이 Fig. 8이다. Ag를 첨가하면 공정온도가 낮아지며 아울러 Y123이 형성되는 온도도 낮아지며, 포정온도 또한 Ag의 첨가량에 따라 낮아진다 [27, 28]. Fan[28] 등의 결과에 의하면 Ag를 18 wt% 첨가하면 포정온도가 970 °C까지 낮아지며, 전류밀도도 향상되었다.

Y123 분말을 880 °C에서 24시간 소결한 초전도 시편의 XRD 희석곡선이 Fig. 9이다. 전형적인 초전도상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80 °C에서 24시간 소결한 시료의  $T_c$  곡선이 Fig. 10이다.  $T_{c,\text{onset}}$ 은 94.1 K이고  $T_{c,\text{zero}}$ 는 92.2 K로  $\Delta T$ 는 1.9 K였다. 발화합성법으로 Y123을 제조한 경우[29]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경우 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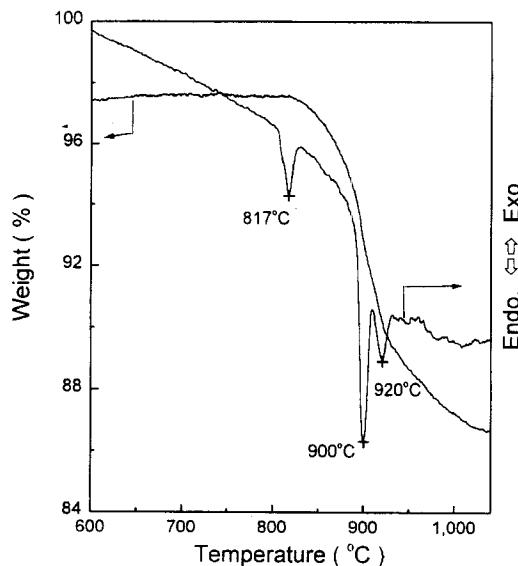


Fig. 8. DSC and TGA curves of Y123-Ag<sub>0.2</sub> powder manufactured by pyrophoric synthetic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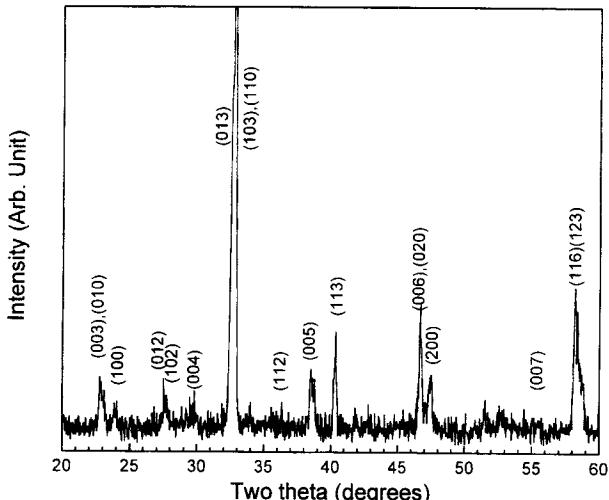


Fig. 9. The X-ray diffraction pattern of Y123 superconductor sintered at 880 °C for 24 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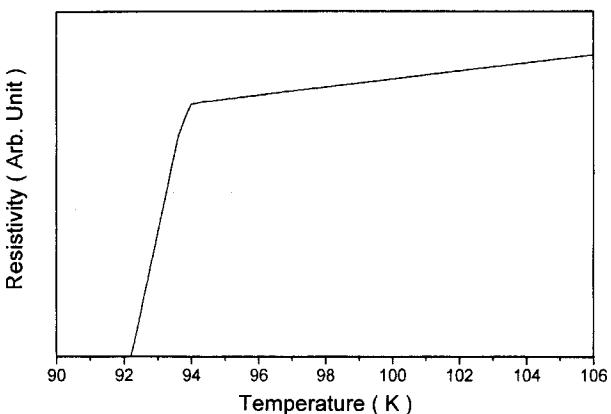


Fig. 10. Electrical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Y123 pellet sintered at 880 °C for 24 hr.

적어 초전도상 생성속도가 빠르며, 미세구조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미세하고 고른 분말이 좋은 하소 특성을 보여 주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880 °C에서 24시간 소결한 초전도 시편의  $\text{YBa}_2\text{Cu}_3\text{O}_{7-x}$ (a)와  $\text{YBa}_2\text{Cu}_3\text{Ag}_x\text{O}_{7-x}$ (b)의 SEM 사진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b)는 0.1, (c)는 0.2, (d)는 0.3 몰 Ag를 첨가한 경우이다. Ag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보다 Ag를 첨가한 시료가 치밀한 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0.2 몰 첨가했을 때가 가장 좋은 미세구조를 가졌다.

Fig. 11의 (c)를 EPMA 분석한 결과가 Fig. 12(a)이고 점 A를 원소분석한 결과가 Fig. 12(b)이다. Ag를 0.2 몰 첨가한 경우에는 입자분포가 고르며, Ag의 분포도 균일하게 이루어졌다. 점 A의 원소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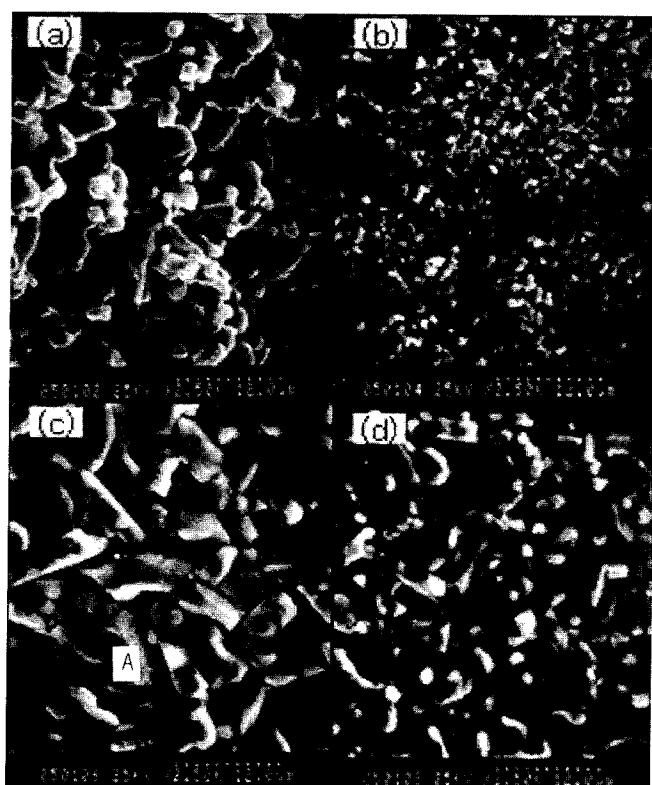


Fig. 11. Secondary electron images of superconductor after sintered for 24 hr at 880 °C.  
(a) Y123, (b) Y123-Ag<sub>0.1</sub>, (c) Y123-Ag<sub>0.2</sub>, and (d) Y123-Ag<sub>0.3</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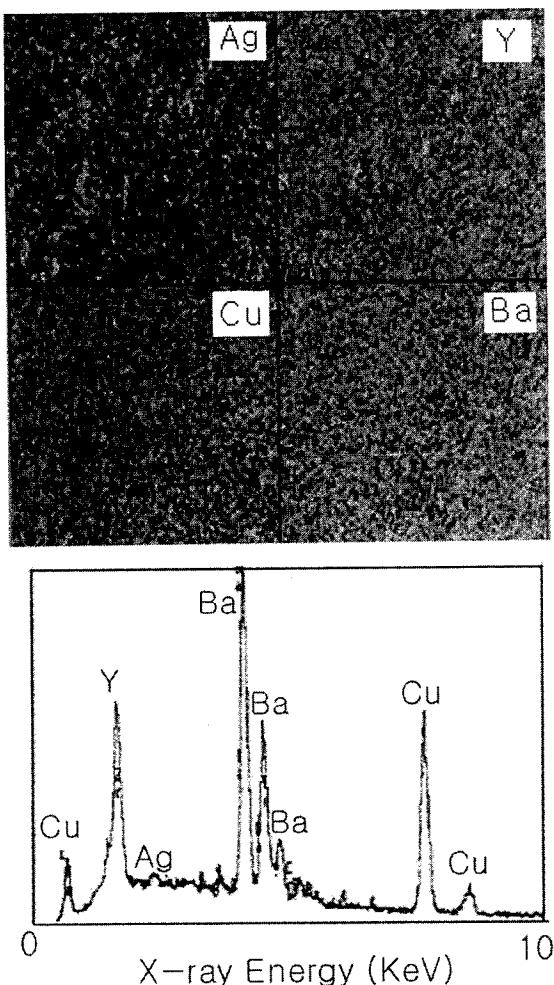


Fig. 12. (a) The two-dimensional distribution map for constituent element Ag, Y, Ba, Cu studied by EPMA for the area corresponding to that shown in Fig. 11(c). (b) EPMA spectra of grain A shown in Fig. 11.

Y : Ba : Cu=1 : 2 : 3을 가졌다. 더욱 치밀해진 미세구조 때문에 초전도 특성의 하나인 임계전류밀도에 큰 향상을 가져오리라 사료된다. 실제로 Yang[21, 22] 등은 발화합성법으로 Ag를 20 wt% 첨가하여 얻은 분말을 가지고 Y123 선재를 제조하였는데 임계전류밀도가 고상반응법에 비해서 높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 Cu 대신 Ag를 일부 치환한 Kim[13, 30] 등의 경우에도 더욱 치밀하고, 입자가 커지며 이로 인해 밀도와 경도가 커지는 경우와 비슷한 결과이다.

##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ext{YBa}_2\text{Cu}_3\text{O}_{7-x}$ 계 고온 초전도체를 원료물질인  $\text{Y}_2\text{O}_3$ ,  $\text{BaCO}_3$ ,  $\text{CuO}$  및  $\text{AgNO}_3$  분말로부터 발화합성법으로 제조하였다. 50 °C에서 건조한 발화용액은 210-240 °C 사이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같은 온도인 210 °C부터 급격한 무게감소를 보여주었고, 240 °C에서의 무게감소는 75%였다. 발화반응을 250 °C에서 5시간 실행을 수행하였다. 또한, 화학적인 액상혼합으로 발화시킨 분말의 입자크기는 0.360  $\mu\text{m}$ 로 고상반응법보다 좋은 소결 특성을 보여주었다. 발화된 분말은 810 °C와 975 °C 사이에서 무게감소를 동반한 흡열반응이 일어났고 이로부터  $\text{YBa}_2\text{Cu}_3\text{O}_{7-x}$ 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880 °C에서 24시간 소결한  $\text{YBa}_2\text{Cu}_3\text{O}_{7-x}$ 의  $T_{c, \text{zero}}$ 는 92.2 K였고, Ag

를 0.2 몰 첨가한 경우에 입자가 치밀한 미세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Onnes, H. K.: *Ledien Comm.*, 120b(1911).
2. Bednorz, J. G. and Müller, K. A.: *Z. Phys.*, **B64**, 189(1986).
3. Chu, C. W., Hor, P. H., Meng, R. L., Gao, L., Huang, Z. J. and Wang, Y. Q.: *Phys. Rev. Lett.*, **58**(4), 405(1987).
4. Hor, P. H., Gao, L., Meng, R. L., Huang, Z. J., Wang, Y. Q., Forster, K., Vassiliou, J., Chu, C. W., Wu, M. K., Ashburn, J. R. and Jorg, C. J.: *Phys. Rev. Lett.*, **58**(9), 911(1987).
5. Maeda, H., Tanaka, Y., Fukutomi, M. and Asano, T.: *Jpn. J. Appl. Phys.*, **27**(2), L209(1988).
6. Sheng, Z. Z., Hermann, A. M., Ali, A. E., Almasan, C., Estrada, J., Datta, T. and Matson, R. J.: *Phys. Rev. Lett.*, **60**(10), 937(1988).
7. Xiao, G., Streitz, F. H., Gavrin, A., Du, Y. W. and Chien, C. L.: *Phys. Rev.*, **B35**(16), 8782(1987).
8. Peterson, R. L. and Ekin, J. W.: *Phys. Rev.*, **B37**(16), 9848(1988).
9. Kim, C. J., Kim, K. B., Hong, G. W. and Won, D. Y.: *J. Mater. Res.*, **7**(9) 2349(1992).
10. Dwir, D., Affronte, M. and Pavuna, D.: *Appl. Phys. Lett.*, **55**(4), 399 (1989).
11. Park, J. H., Kim, B. C. and Song, J. T.: *Korean. J. of Mat. Res.*, **4**(1), 37(1994).
12. Bhattacharya, D., Pathak, L. C., Mishra, S. K., Sen, D. and Chopra, K. L.: *Appl. Phys. Lett.*, **57**(20), 2145(1990).
13. Kim, Y. S., Yang, S. W., Park, J. S. and Shin, H. S.: *J. of Korean Ind. & Eng. Chemistry*, **7**(4), 639(1996).
14. Park, J. S., Kim, Y. S., Yang, S. W., Kim, C. Y. and Shin, H. S.: *J. of Korean Ind. & Eng. Chemistry*, **9**(2), 165(1998).
15. Jin, S., Tiefel, T. H., Sherwood, R. C., Davis, M. E., van Dover, R. B., Kammlott, G. W., Fastnacht, R. A. and Keith, H. D.: *Appl. Phys. Lett.*, **52**, 2074(1988).
16. Salama, K., Selvamanikam, V., Gao, L. and Sun, K.: *Appl. Phys. Lett.*, **54**, 2352(1989).
17. Murakami, M., Morita, M., Doi, K. and Miyamoto, M.: *Jpn. J. Appl. Phys.*, **28**, 1189(1989).
18. Fujimoto, H., Murakami, M., Gotoh, S., Koshizuka, N. and Tanaka, S.: *Adv. Superconductivity II*, 285(1990).
19. Park, J. S., Kim, Y. S., Yang, S. W., Cho, I. J., Kim, C. Y. and Shin, H. S.: *Korean J. Chem. Eng.*, **15**, 304(1998).
20. Sun, Y. K., Oh, I. H. and Lee, W. Y.: *Korean Journal of Chem. Eng.*, **14**(1), 59(1997).
21. Yang, S. W., Kim, C. J., Hong, G. W. and Shin, H. S.: *Korean J. of Mat. Res.*, **8**(12), 1082(1998).
22. Yang, S. W., Lee, Y. M., Kim, Y. S., Park, J. S., Kim, C. J., Hong, G. W. and Shin, H. S.: *J. of Korean Ind. & Eng. Chemistry*, **9**(7), 1011 (1998).
23. Park, J. S.: *J. of Korean Ind. & Eng. Chemistry*, **10**(5), 772(1999).
24. Kishan, P., Nagpaul, L. K. and Chatterjee, S. N.: *Solid State Commun.*, **65**, 1019(1988).
25. Nomura, S., Yoshino, H. and Ando, K.: *J. of Crystal Growth*, **92**, 682(1988).
26. Kamat, R. V., Vittal Rao, T. V., Pillai, K. T., Vaidya, V. N. and Sood, D. D.: *Physica C*, **181**, 245(1991).

27. Wiesner, U., Krabbes, G., Ueltzen, M., Magerkurth, C., Plewa, J. and Altenburg, H.: *Physica C*, **294**, 17(1998).
28. Fan, Z. G., Shan, Y. Q., Wang, W. H., Wang, X. Y., Soh, D. W. and Zaho, Z. X.: *Physica C*, **282**, 495(1997).
29. Park, J. S., Kim, Y. S. and Shin, H. S.: *HWAHAK KONGHAK* submitted 1999.
30. Kim, Y. S., Park, J. S., Chung, B. W. and Shin, H. S.: *Korean J. Chem. Eng.*, **12**, 563(1995).